

# 시도교육감협,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 부산 총회, 교장공모제 개선 등 9개 안건 의결... 세월호 참사 공동 추모 주간 4월 10~16일 설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부산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등 총 9개의 본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안건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안건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건설에 따른 학교 용지 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안건에서 승진이 아닌 공모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교장 공모제 응모 학교의 수를 교육감이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했다.

이밖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국장 회의, 감사관 회의 간의 관계 규정을 위한 협의 및 규약 개정 검토를 임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특히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 추모 사업으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시도교육감 공동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모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자체 수립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부산에서 총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등 총 9개의 본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재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한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낸 결과"라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는 제

도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회장은 이어 "이번 대선 과정과 차기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난달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9대 교육개혁

과제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전면 폐기와 국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해은 기자

## 홍일표 "3당 개헌안 19대 대통령 임기 3년"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은 17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이번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지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q&a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줄여보자는 것이고 2020년에 총선이 있으니 그 때 대선을 또 같이해서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3년의 임기를 끝내고 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4년 중임제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며 "반약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된 뒤에 다시 4년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대선에 나간다면 결국 7년을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다 (당선)된 5년 대통령제를 왜 단축하려느냐고 반대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면 그렇게 거부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뉴스1

## 법원, 이재용 재판부 교체... '최순실 인연' 논란에

### 부패전담 형사합의27부로... 해당 부장판사 "장인과의 인연 몰라...재판 공정성 위해 요청"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의 장인이 최순실(61)씨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일자 법원이 하루 만에 재판부를 교체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김진동(52)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재판 공정성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때'를 규정한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4호에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 사건은 뇌물 관련 사건으로

같은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로 옮겨졌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관련 김수현(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사건과 '넥스 공짜 주식' 관련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이 재판부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진 전 검사장에게 한진그룹 내사사건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넥스으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전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모씨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을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를 맡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씨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임씨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하고 최씨 부녀와 만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고 1975년께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며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씨를 한번 만난 적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씨가 독일 갈 때 지인에게 그를 소개해 준 사실 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망 후 최태민씨나 최순실씨 등 그 일가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1

## 민주당 대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전과·논문표절 등 신상 공격 남발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신상을 둘러싼 후보간 공방이 이어졌다. 최성 고양시장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간 복역한 사실을 지난 토론회에 이어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지난 토론회에서 범죄경력서 공개하자고 국민에게 합의했다. 범죄경력서에는 범죄 경력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판결문이 나와 있다"며 "이미 판결문이 언론에 나왔고, 인터넷 상에서 삼성 정치자금기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 안 후보는 그건 아니다. 억울하다고 했다. 당을 위해 희생했다고 한다. 본선에 나가면 나오게 되는데 공개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안 지사는 "제가 안고 가야할 정치적 흠결이다. 흠 없는 인상이면 좋겠지만 흠이 있다. 당의 존경하는 동지가 그 사실로 나무라니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서도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전과를 지목하며 "총리와 감사원장 등이 이 시장과 유사하게 음주운전, 논문표절 논란이 있으면 임명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논문표절은 해당 대학에서 논문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달라"며 "음주운전은 민간인일 때 수십년 전 벌어진 일이다. 공직자로서 한 일과는 구분해야 한다. 오버바도 마약사범이었다"고 항변했다. /뉴스1

## 도의회,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전북도의회는 17일 도의원 3명을 포함해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10명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0일부터 20일간 활동하면서 전북도 6조 1,681억원, 도교육청 2조 9,027억원 등 총 9조 708억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해 결산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 결산서는 6월 도의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결산서 첨부서류가 결산검사 대상에 추가되고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일간의 직무교육이 의무화 되는 등 결산검사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인재용 기자

## 강용구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남원협 감사패 수상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도의원은 17일 바르게살기운동 남원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원협의회는 강용구 의원이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했을 뿐 아니라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주민 화합과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 강용구 의원은 "남원 지역 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감사패까지 받고 보니 어깨가 더욱 무겁다"면서 "감사패를 주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기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더 남원시의 발전과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인재용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